



서울대학교 뉴욕지역

골든클럽 회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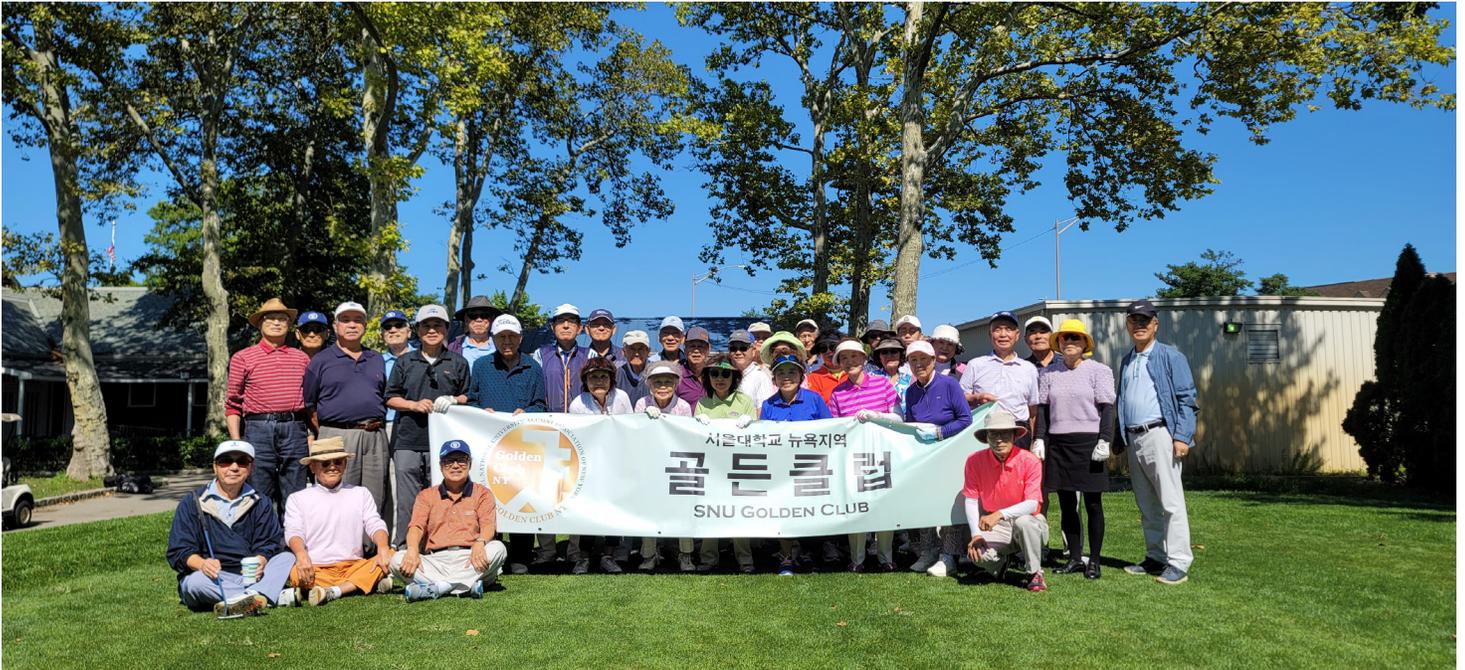
GOLDEN CLUB NEWSLETTER

OCTOBER 2022

WE LEAD A HEALTHY AND HAPPY LIFE

VOL. 126

Clearview G.C 골프대회



Queens 북쪽에 위치해 바다 건너 멀리 Blonx City Island가 보이는 Clearview Golf Club에 역전의 용사 36명이 모였습니다. Clearview 골프장은 한인타운 Flushing에서 가까운 public course로 오래 전부터 많은 교포들이 이용해 왔던 친근감이 있는 골프장입니다. 청명하면서 더운 기운이 가신 늦여름 날씨는 골프치기에 딱 좋은 날이었습니다.

열심히 공을 치는 사이사이 오랫동안 골든클럽에서 활동하시다 Georgia로 이사 가시는 한영수 회원 부부와는 자주 오시라는 석별의 인사가 있었고, 모처럼 참석하신 여주영 회원의 활기찬 모습도 볼 수가 있었고, 김영만 회원 부인이 갑자기 아프시다는 소식으로 쾌차를 비는 위로의 얘기들도 있었고, 회원 30명이 고국방문을 떠나는데 건강하게 즐거운 여행 잘 다녀오시라는 덕담들이 있었습니다.

클럽하우스에서 준비한 음식도 좋았고 이차로 장소를 이동하지 않아서 편리했습니다. 다만 뉴욕과 뉴저지 왕래는 다리를 건너기에 좀 혼잡했지만 자주 하는게 아니어서 다행이란 생각도 들었습니다.

말은 살피고, 사과를 빨갛게 주렁주렁, 호박은 넝쿨째 익어가는 풍성한 가을이 성큼 다가온 느낌이었습니다. 힘차게 공을 치고 먼 하늘을 바라보다 문득 박경리 작가의 ‘...모진 세월 가고...아- 아, 편안하다. 늙어서 이렇게 편안한 것을...’이란 글귀가 떠오르더군요.

욕심을 반쯤 태워 버리고, 마음을 반쯤만 더 비울 수가 있다면, 머리가 맑아지고 순리란게 보이지 않을까? 하는 뜬구름 같은 생각도 해봤습니다. 흐르는 강물에 몸을 맡기면 노저를 필요도 없이 편안하게 아래로 흘러가겠지요.

어쩌다 보니 불혹과 지천명의 나이를 지나 세상 이치를 이해하고, 마음이 내키는대로 말하고 행동해도 법도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이순(耳順)과 종심(從心)의 나이에 대부분의 회원들이 접어들었네요.

가을의 문턱에서 사랑이 많은 동문들과 함께 넉넉함과 편안함을 나누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오순문 편집위원)

뉴욕동창회 추계 골프대회

10월 산행 안내

뉴욕동창회에서는 친선을 위한 추계 골프대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골든클럽 회원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날짜: 2022년 10월 12일 (수)
시간: 오전 11시 Shotgun
(10시까지 도착 바랍니다.)
장소: Walkill Golf Club
주소: 40 Sands Rd, Middletown,
NY 10941
참가비: \$120
신청: 김정필
(201)965-7759
email: jaypkim@keiusa.com

오는 10월 20일 하이킹은 West Point 북쪽 9W 선상 고갯마루에서 Hudson 강이 내려다 보이며 확트인 전망을 즐길 수 있는 Storm King Mt.을 행선지로 잡았으니 많이 참가하여 깊어가는 가을의 정취를 한껏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산행지: Storm King Mountain
일시: 10월 20일(목) 9:00시
모이는 장소: PIP Exit 4-5 중간 주차장
Storm King Trailhead GPS 좌표; 41.423196,-74.000773

준비물: 각자 마실 물과 간단한 도시락을 준비하기 바랍니다.
(따끈한 곰탕라면은 끊여 드립니다)
참가신청: 홍종만 646-342-2667, hong1945@gmail.com



한영수 회원 아틀란타로 이주

골든클럽 골프대회에 열심히 참가하며 좋은 성적으로 우수한 기량을 보여주시던 한영수 회원 내외분이 지난 9월 20일 정든 Whitestone, Queens을 떠나 Atlanta로 이주하셨습니다. 겨울 내내 불편없이 골프칠 수 있는게 큰 이유라고 하셨으니 더욱 건강하게 골프인생 즐기시기 바랍니다. 섭섭하지만, 다행인 것은 아드님(Paul Hahn)이 뉴저지에서 망막전문의로 근무하고 있어 가끔은 뉴욕에 오실 예정이며, 골든클럽 골프대회에도 참가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New address: Young Soo Hahn
2541 River Cane Way
Buford, GA 30519

서울대 뉴욕지역 동창회 장학금 신청

신청자격 : 서울대 출신 유학생으로 뉴욕 메트로폴리탄지역에 위치한 위치한 대학에서 석사 및 박사학위 과정의 학생 또는 뉴욕지역 동창회 회원의 배우자 또는 회원의 자녀, 손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기한 : 2022. 10. 31
장학금 금액 : 각 \$3,000
선발인원: 5명 내외
발표일 : 2022. 11. 30
신청서류제출 : SNUAA-NY(Young Chun Kum)
53 Fraser Street, Staten Island, NY 10314
문의사항 : 장학위원회 718-791-4397
snuaany@gmail.com

신청서류 :

1. 신청서 (정해진 양식)
2. 이력서 (Resume)
3. 자기 소개서 (Personal Introduction Statement)
4. 교수 추천서 (Recommendation Letter)
5. 지난학기 성적증명서 (Scholastic Transcript)
6. 부모님의 (혹은 자신의) 2021년도 소득세 신고서

뉴욕동문회 회장: 김영천

장학위원장 조상근

골든클럽 한국여행단 모교 방문



모교 도서관을 방문



고 정인식 회장이 기부한 소극장

2년전 계획했다가 Covid 19 Pandemic으로 무산되었던 ‘한국여행’을 다시 추진하면서 불확실한 여건 변화로 조심스럽기도 하였으나, 낮은 Covid/Omicron치사율 기준으로 감기/독감 수준의 관리 가능한 전염병으로 인식되고 항공기 탑승 전 PCR 검사 면제 등 방역규제가 완화되어 예상보다 간편한 입국 절차를 거쳐 한국에 입국하였다.

9월 20일 첫날 행사로. 아침 10시부터 중앙도서관으로 안내되어 고 정인식 골든클럽 회장의 기부로 지은 ‘소극장’과 송학린 회원이

기증한 ‘그롭스튜디오’도 둘러 보며 기부문화의 선례를 실감하였고, 이어 규장각에서는 정조대왕이래 국학연구 자료를 둘러보았으며. 오후에는 호암교수회관에서 총동창회장 초청 오찬회에 참석하여 이승무 사무총장 등 간부들의 융성한 대접을 받으며 뉴욕동창회 및 골든클럽의 위상을 실감하며 10일간의 여행일정에 들어갔다.

‘한국여행’ 종합 보고는 이번 행사를 위하여 철저한 준비로 빈틈없는 진행을 맡고있는 손대홍 여행단장이 사진과 함께 정리하여 다음 달 회보에 게재할 예정이다.

9월 골프대회 보고

일시: 9월 15일 (목)
장소: Clearview Golf Club, Queens
참가인원: 36명
시상 내역:

Group	상	상금	이름	Gros	Net	Over
All	1등	60	송용길	95	25	-6
	2등	40	김승호	93	23	-5
	2등	40	배상규	95	25	-4
	3등	20	임호순	90	20	-3
	3등	20	박희병	85	15	-3
	3등	20	여주영	103	33	-3
	#4	50	김정필			
	#7	50	김창수			
	#12	50	권영수			
	#16	50	진봉일			

경비 내역 (40명 약속에 36명 참석으로 결손이 발생함)

수입		\$	4,520.00
	참가비	\$	4,320.00
	후원금 (금영천)	\$	200.00
지출		\$	4,906.00
	Green fee /Dinner	\$	4,240.00
	김밥	\$	266.00
	상금	\$	400.00
결산		\$	(386.00)



골프대회 경기 입상자



Close Pin 입상자

골든클럽 뉴스레터 9월호를 보고

■ 김영만 (상대59)

동문들의 모교 SNU에 대한 자부심은 말을 할 필요가 없으리라고 본다. 특히 해외에 있는 우리들이 갖는 느낌은 표현은 못 할 망정 국내에 계신 동문들과는 사뭇 다르리라는 것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거기에 뉴욕 동문들은 골든클럽을 통한 혜택까지 누리고 있으니 정말 고맙다.

골든클럽 회보 9월호를 받아보고 필자는 평소보다 큰 기쁨과 함께 감사를 느낄 수 있었다. 김익성 선배님이 87세에 86를 치셔서 age-shooter가 되셨다는 소식은 물론, 지금까지 age shooting 하신분이 4분이나 되신다는 사실에 정말 놀랍고 반가웠다. 이런 반가운 소식은 우리들의 골든클럽 회보가 아니면 어디서도 접할 수 없을 것이다. 이분들께 진심어린 축하와 뜨거운 박수를 보내드린다.

뉴욕에 계신 동문들 특히 골프를 즐기시는 분들은 골든 클럽을 통해서 아주 특별한 혜택을 누리고 있다고 본다. 나이가 들어보면 사교와 운동을 겸할 수 있는 것은 골프밖에 없다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골프를 즐기려면 갖추어야 할 것들이 몇 가지 있다. Tee Time예약과 Partner찾기 등 간단한 듯 하면서 쉽게 풀리지 않는 것들이다. 이런 것들을 골든클럽 회원들은 아주

쉽게 해결하고 있으니 얼마나 고마운 일인가. 오직 골든클럽만이 줄 수 있는 혜택이다.

첫째: 동문수학한 선후배가 한 달에 한번씩 골프를 즐기며 여러분을 만날 수 있으니 Partner 문제를 해결해 주고,

둘째: 동문간의 대화를 통해서 우정을 나눌 수 있고 공동관심사에 대한 의견교환도 하며,

셋째 : age-shooting하신 선배님들이나 동문님들을 통해서 자극도 받을 수 있고 기량향상을 위한 tip도 얻을 수 있겠다.

골든클럽을 발족시키고 미래를 위한 재정적 기반의 마련해 주신 이준행선배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그동안 이끌어 오신 손경택 회장, 홍종만 회장, 윤현남 편집위원장, 김정필 사무총장, 수고 많으셨고,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노년의 자산관리 - Zoom Seminar 후기

■ 김병순 (경제82)

여유자금으로 투자를 할 때 필요한 다양한 금융자산에 대한 개념, 수익성 및 위험성에 대하여 먼저 강사인 저의 설명이 있었다. 예금, 채권, 주식에 대한 설명은 쉽게 이해를 하시는 듯 하였으나 파생상품, 암호화폐에 대한 설명에는 제 나름대로는 최대한 쉽고 간략하게 설명한다고 하였으나 대략 난감하신틀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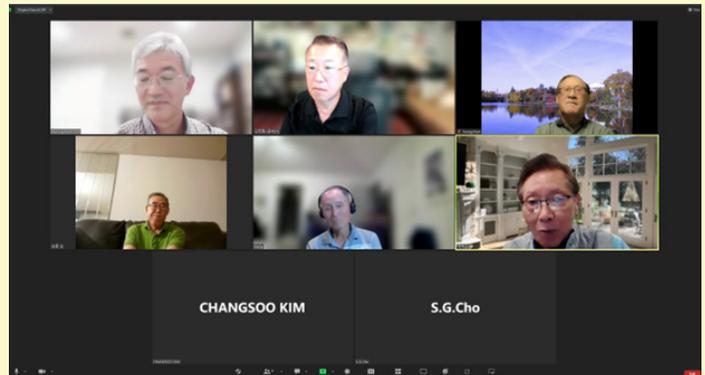
주식 투자의 경우 여태까지 손해를 보는 사람들을 주위에서 많이 접하다 보니 거부감부터 가지고 있지만, 미국 주식시장에서 우량주식의 경우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은행 이자율보다는 높은 수익을 어느 정도는 안정적으로 시현할 수 있으니 조심스럽게 ETF를 중심으로 주식에도 접해보는 것을 권유하면서 저의 설명을 마무리하였다.

향후 부동산과 금융자산의 가격들이 많이 하락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수익율이 10% 정도 된다는 것과는 괴리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질의가 있었는데 10%는 자산을 대변하는 Fund의 장기수익율을 의미하는 것이고 단기적으로 수익율이 감소될 수는 있을 것이라고 답변하였다.

주식의 수익율이 은행이자율 보다 높게 시현되고 있으므로 뉴욕 지역 서울대 동문의 장학기금의 일부를 수익성이 좋은 자산 투자를 고려하는 것이 어떠냐?는 질문에 관리하는 적정한 사람이 있는

것이 전제조건이며 ETF 로 투자하는 것은 고려해 볼 수는 있을 것 같다고 답변하였는데 장학기금 같은 공공기금의 경우 원금 손실이 발생하는 투자는 절대 불가하니 보수적인 투자방향을 고수하여 주식 투자에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하는 동문도 있었다.

Terra 및 Luna 암호화폐와 관련하여 권도형대표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 등을 보아 암호화폐는 상당히 위험하다는 느낌이 있다는 의견과 팬데믹 이후 시중에 유동성이 과다하게 풍부하여 암호화폐에 대한 투자가 활성화되어 가격 상승이 있었으나 언제 폭락할 지 모르는 불안한 요소가 있으니 암호화폐에 대한 투자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알젠티 선교를 다녀와서.

■ 성기로 (약대57)

이번 알젠티 선교는 내가 섬기는 퀸즈한인 교회의 교우 14명이 한 팀이 되어 8월 30 일에 출발하여 1 주일 동안, 아름다운 이과수 폭포를 끼고, 한 없이 펼쳐진 산림 속에 자리 잡은 “과라니” 원주민을 대상으로 한 사역이었다.

선교를 하고 싶어, 나이 80 에 겨우 한의대를 졸업하고 막 침술 사역을 시작하려는 차에 Covid 가 터져서 사역을 중단 했다가 Covid 후 2번째로 참여하는 선교 사역이다. 함께 한 선교팀이 의료사역, 치과사역, 침술사역, 미용사역으로 나누어져서 각자 맡은 사역 안에서 지칠 줄 모르는 열정으로 주민들을 섬기게 된 아름다운 사역으로 기억된다.

영화 “미손” 에서 볼 수 있듯이 이과수 폭포를 중심으로 살고 있던 “과라니” 원주민들이 서구 군대의 공격으로 몰살의 위기에 있을 때 9명의 원주민들 (여자 5명과 남자 4 명)이 도망쳐서 구사일생으로 살아 남아 정착한 곳이 바로 이광보 선교사님의 사역지이며, 이곳에 단기 선교로 와 한많은 과라니 부족을 섬기고 있다고 생각할 때 깊은 감회를 금할 수가 없었다.

23 년전 알젠티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 에 있는 한인 장로교회의 파송을 받고, 이곳 과라니 부족의 첫 선교사가 된 이광보 선교사님께서 철저히 현대 문명과 복음으로 부터 소외된 인디오 “과라니 부족” 의 선교를 위하여, 삶의 전체를 드리고 계시며, 선교를 통하여 저들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는데 헌신하고 계신다.

과라니 부족은 이과수 폭포를 끼고 광활하게 펼쳐진 산림지역에 흠

어져 살고 있으며, 현재는 약 12,000 명이 되는 과라니 주민들이 80 개 마을에 분산되어 살고 있다. 이광보 선교사님은 훌훌 단신 이곳에 오셔서 마을 마다 들어가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건축 하며, 지도자를 세우심으로 마을 복음화에 헌신하고 계시며, 현재 까지 42 개 마을에 교회를 세우는 기적 같은 선교의 열매를 맺고 계신다. 마을 마다 교회가 세워지면 시 정부에서 마을로 들어가는 길을 만들어 주고, 전기가 들어오고, 학교가 세워지는 혜택을 받게되어, 원주민들의 삶이 변화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나는 침술 사역으로 선교 기간 동안 6개 교회에서 과라니 주민들을 섬겼는데, 대부분 중노동으로 어깨, 허리, 무릎이 아파 고통을 받는 환자들이 많았으며, 도랑 물을 음료수로 사용하는 마을 주민들은 위장에 문제를 호소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복잡한 도시에 사는 사람보다 생각과 삶이 단순해서인지 훨씬 치료에 대한 반응이 좋아서 나름대로 보람을 느끼고 돌아올 수 있었다.

두번의 “과라니 부족” 선교 사역을 통해서, 주민들을 향한 친밀감과 애착심이 나도 모르게 깊어진 것을 느끼게 된다. 산림속에 과묵해서 현대문명으로 부터 완전히 차단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주민들이 불쌍하게 느껴졌으며, 그래도 알젠티 나라가 잘 되어야, 과라니 주민들도 혜택이 있을 텐데 하며, 점점 쇠퇴하는 “알젠티” 을 보며 마음 한 구석에 답답함을 금할 수 없다.



손자와 함께한 아프리카 사파리 여행 1부

■ 오용호 (의대66)

내 둘째 손자 다니엘이 다섯 살일 때 (3년전 pre-pandemic 시절) 아프리카 사파리를 데려가겠다 약속하고 금년이 되어서야 열흘 간의 탄자니아 사파리 여행을 떠날 수 있었다. 준비 도중 여러 우여 곡절 끝에 다니엘과 나 둘이서 6/14일 JFK에서 떠나 Qatar의 Doha를 경유해 무려 24 시간 만에 Kilimanjaro Airport에 도착했다.



공항에 내리니 조그만 시골 간이역 같은 초라한 역이었고 청사의 입국 수속장은 아수라장이었다. 여행객 수십 명 수속에 거의 두시간을 걸려 공항 밖으로 나오니 여행사 직원이 반갑게 우리를 맞아 호텔까지 데려다 줬다. 호텔은 넓은 정원과 시원한 로비 너머로 보이는 큰 수영장을 갖고 있는 현대식 건물로 가난이 짓누르는 바깥동네와는 너무나 대조적이었다. 우선 오후에 여행 총괄 가이드인 Susan이 우리 일행 모두에게 앞으로 있을 10일 간의 사파리 여행 오리엔테이션을 받았다. 일행은 총 26명 6가족으로 우리가 두명으로 가장 적었다.

첫 번째 사파리 여행은 Arusha National Park으로 호텔에서 멀지 않은 Meru Mountain (Tanzania에서 킬리만자로 산 다음으로 높은 4500 m 정도의 산) 산자락에 있는 최근 국립 공원으로 지정된 가장 작은 국립 공원이다. 아침 식사 후 일행이 다섯 대의 사파리 전용 차량(최대 8명까지 승선, open-top 가능)을 나누어 타고 한 시간 정도 지나 공원에 도착하였다. 입장 수속을 끝내고 공원 안으로 들어가면서 지붕을 올리고 safari가 시작되었는데 가이드들은 이 지역의 생성과정, 생태계 및, 동식물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고 우리들을 교육시키고 즐겁게 해준다. 공원에 들어서니 모두 흥분된 마음으로 어떤 동물들이 나타날까, 어떤 동물을 제일 먼저 볼까 하고 들떠 있었다. Jeep차가 오르막길을 한참 올라가다 모퉁이를 돌아서니 갑자기 넓은 초원이 나오고 멀리 초원 가운데 조그만 연못이 있는데 그 주위에 많은 무리의 얼룩말, wildebeest, impala, and gazelle 들이 한가로이 풀을 뜯고 있었다. 코끼리, 기린, 원숭이, 사자, 그리고 하마라고 기대했던 우리는 모두 웃고 말았다. 가이드의 말에 의하



면 코끼리, 사자들은 이 곳에선 보기 힘들고 운이 좋으면 기린과 하마는 볼 수 있을 것이라 했다. 이 공원은 높은 산의 산자락에 있으면서 숲이 우거지고 약간 고산 지대라(해발 1500m 정도) 많은 종류의 원숭이가 살고 있고 우리는 최소 6-7 종의 원숭이 무리를 만났다.

또 크고 작은 여러 호수들이 산재해 있는데 한 호수에는 많은 무리의 홍학이 호수 가장자리에 몰려서 부리를 물에 박고 무언가를 열심히 먹고 있는데 멀리서 보니 무슨 물거품처럼 보였다. 가이드에 의하면 salted water에 사는 algae를 먹는다고 하며 이 공원의 몇 호수는 salted water라 한다.

다음날은 차로 서너 시간 걸려 Tarangerie 국립 공원 지역으로 이동했다. 새 숙소는 공원의 중심부의 높은 언덕에 위치한 Tarangerie Safari Lodge로 주위로 펼쳐진 광대한 panoramic view가 장관이다. 숙소는 고도 위치상 Wi-Fi service가 제한적이고, 전기도 몇 시간만 들어오고, 동물들이 항상 숙소 주위에 출몰하니 조심하라는 통지도 받았다.

점심 후 사파리에 나섰다. 아프리카 사파리 세계에서 big five 라고 지칭하는 코끼리, 물소, 사자, 코뿔소, 그리고 표범 중 코뿔소만 빼고 모두 만났다. 특히 코끼리는 이 공원에 흔해서 숙소에서 내려다봐도 여기 저기 몇 마리의 코끼리 떼가 matriarch 뒤를 따라 이동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Matriarch는 무리 중 가장 현명한 암컷인데 코끼리때는 그의 인솔하에 질서 정연하게 이동하고 사회 생활을 한다. 드물지 않게 외로이 홀로된 코끼리가 발견되는데 이들은 어김없이 성숙한 수 코끼리이다. 한참을 가는데 가이드가 시냇가를 보라 하여 봤더니 암 사자 한 마리가 옆으로 누워있고 그 옆에 방금 사냥한 듯한 wildebeest 가 죽어서 넘어져 있었다. 10여 m 뒤로 대 여섯 마리의 암사자가 여기 저기 누워서 휴식을 취하고 있었다. 아마도 이 들은 그리 배가 고프지 않은가 보다. 가장 장관인 것은 주위 여러 그루

의 큰 나무위에 수십 마리의 vulture가 조용히 아래를 내려다보며 사자가 시식을 끝내기를 기다리고 있다.

다음날 다시 우리는 다시 투어에 나섰다. 그동안 다니엘은 사파리 관련 책도 많이 읽고 YouTube channel도 많이 봐서 인지 아는 것이 많고 가이드의 코멘트도 잘 소화하면서 망원경으로 여러 다른 종류의 antelopes를 식별하며 못 보던 동물을 보면 가이드에게 즉시 물어보곤 했다. 마침 시냇가에 한 30여 마리의 코끼리가 어울리며 어떤 놈들은 풀과 작은 나뭇가지를 먹고 있었고 한 켠에서는 어린 코끼리 두 마리가 한가로이 장난 치면서 놀고 있었다. 아프리카 코끼리는 지상에 살고 있는 동물 중 가장 커서 무게가 10 톤 이상 되는 놈도 있다. 또 한 무리의 물소도 만났는데 솟놈은 큰 뿔을 머리에 얹고 몸무게가 1톤 가까이되고 성질이 사납기로 유명하다. 힘센 놈이 자기 무리들을 보호하고 사자가 이 무서운 물소를 사냥하지만 사자도 목숨을 내걸고 여러 마리가 함께 공격하지 않으면 쉽게 넘어트릴 수가 없다.

저녁은 식후 식당 앞 넓직한 공터에서 모닥불을 피워 놓고



marshmallow를 구워 먹으며 Masai 족에 대한 orientation을 받았다.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들기 시작하여 광대하게 펼쳐진 들판이 온통 붉은 색으로 변화했다. 금방 사방이 어둠으로 변하면서 하늘에서 별이 쏟아져 내리는데 너무나 많은 별들이 박혀서 빈 자리가 보이지 않는다.

다음날은 Ngorongoro Conservation Area를 향해 일찍 떠났다. 이곳은 오래전부터 Masai 족의 정착지이라 동물들과 사람들이 공존하는 지역으로 만들어 conservation area로 지정하였다. 가는 길목에 있는 Masai 족의 촌락을 방문하여 그들의 촌락형성과 주거형태를 관찰하고 유명한 jumping performance도 관람했다 점심 후에도 한참을 더 달려가 앞으로 이틀 목을 분화구 밖에 위치한 호젓한 숙소에 여장을 풀었다.

다음날은 아침 일찍 Ngorongoro 분화구를 향해 출발하였다. 40여 분 안개속을 뚫고 꼬불꼬불한 비탈길을 올라가 정상에 도착하니 마침 안개가 걷히고 산 아래 넓은 평원이 펼쳐지고 산으로 빙빙 둘러



쳐져 있지만 하도 넓어 끝이 잘 보이지 않는다. 대강 crater의 지름이 약 20km로 세계에서 가장 큰 분화구(실제로는 caldera)이다. 분화구는 뺨 돌아가며 높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분화구 안은 넓은 초원과 큰 호수들로 구성되었다. 이런 지형관계로 이 안의 동식물들은 이 지역안에서만 주로 생활하며 특유한 생태계를 오랜 세월 유지해왔다.

한참 비탈길을 내려가 분화구 안으로 들어오니 비로소 동물들이 무리지어 뛰어다니며 동물들의 낙원처럼 보인다. 호수와 연못 수로들이 흩어져 있어 하마들이 물속과 물 주위에 서성거리고 물소들이 흔하게 보인다. Salted 연못들이 있는 탕으로 홍학들이 군집하고 들판에는 타조들이 하늘엔 독수리, vultures 뿐 아니고 이름 모를 새들이 자유로이 마음껏 날아다닌다. 여러 무리의 원숭이들이 장난치며 놀고 있고 나무들이 비교적 많은 한 모퉁이에 사자 몇 마리가 풀 밭에 누워 주위를 무시하는 듯이 쉬고 있다. 얼마 떨어지지 않은 나무에 표범 한 마리가 한가로이 가로 누워서 자고 있다. 영화나 YouTube 비디오에서 본 사자나 표범의 사냥하는 극적인 장면을 기대했지만 predators는 대개 야행성이라 여행객에게는 그림의 떡일 뿐이다. 하루 종일 분화구안을 돌아다니며 구경하다가 늦은 오후에 숙소로 돌아왔다. [나머지2부는 11월호에 계속 게재할 예정입니다.]



회원 명단 (114명 / 2022-9-24)

강교숙	김병순	최숙희	오유섭	이준행	최병우
강에드	김상만	박희병	오인석	이준희	최수용
강영선	김승호	배상규	우규환	이행순	최순채
계동휘	김영택	성기로	유무영	이흥빈	최진영
고애자	김영만	손갑수	윤선구	임도혁	최철용
곽상준	김우영	손경택	윤종숙	임창우	최학주
곽선섭	김익성	손대홍/	윤현남	임호순	추재욱
곽승용	김인형	남종현	이강홍	정도현	한영수
권달희	김정필	손옥화	이민제	정수일	한태진/
홍선경	김종울	송근길/	이상무	조승자	한태진/
권영대	김창수	송웅길/	이 준	조상근	안용희
권태전	김치갑	송현자	이대연	정해민	허용웅
금영천	김태일	송학린	이대영	조상근	허유선
김광수	김한중	송혜순	이범선	주상선	홍사만
김광현	김현중	신진식	이수호	주재양	홍정표
김동건	노용면	신응남	이용대	진봉일	홍지복
김문경	민준기	양인회	이전구	천병수/	홍종만/
김문연	박기환	오순문	이종대	천종화	홍예경
	박준구/	오용호	이종석	최구진	

골든클럽 2022년 행사 일람 (2022-9-24)

1월	23~29일	플로리다 골프트립 (12명 참가)
3월	26일(토)	신년교례회 - Atrium of Tenafly (81명 참가)
4월	14일(목)	Hiking - Lake Skannatati -취소
	21일(목)	Golf Outing -Sunset Valley (38명 참가)
5월	18일(수)	동창회 춘계 골프대회 -Wallkill (39명 참가)
	26일(목)	여성회원 피크닉 (18명 참가)
6월	9일(목)	Golf Outing - Split Rock Golf Club (45명 참가)
	16일(목)	Picnic - Rockland Lake State Park (50명 참가)
	23일(목)	Zoom seminar (슬기로운 supermarket)
7월	14일(목)	Golf Outing -Sunset Valley (37명 참가)
	28일(목)	Barnes Museum Tour, Philadelphia (취소)
8월	11일(목)	Golf Outing - Valley Brooks (30명 참가)
	20일(토)	뉴욕지역동창회 Picnic (80명 참가)
9월	14일(수)	Zoom seminar (노년의 자산관리)
	15일(목)	Golf Outing- Clearview, NY (36명 참가)
	18-30일	한국방문여행
10월	12일(수)	동창회 추계골프대회(Wallkil Golf Club,NY)
	20일(목)	Harriman State Park 산행
11월	3일(목)	Golf Outing (Rockleigh Golf Club)
12월	3일(토)	뉴욕지역동창회 송년회
1월	22-28일	골프트립, West Palm Beach, Florida
4월	1일(토)	신년교례회

2022년 연회비 납부 명단 (90명 / \$9000/ 2022-9-24)

강교숙	김문경	김한중	송웅길	이강홍	임창우	최진영
강에드	김문연	김현중	송현자	이대연	임호순	최철용
강영선	김병순	민준기	송혜순	이대영	조달훈	한영수
고애자	김상만	박기환	송학린	이민제	조승자	한용오
권정덕	김상호	박희병	신응남	이상무	진봉일	한태진
권태전	김영만	배상규	신진식	이용대	정도현	안용희
계동휘	김우영	성기로	오순문	이전구	정해민	허용웅
곽선섭	김익성	손갑수	오용호	이종대	주재양	홍선경
곽승용	김종울	손대홍	오유섭	이종석	천병수	홍종만
금영천	김창수	남종현	오인석	이 준	천종화	홍예경
김광수	김태일	손경택	우규환	이행순	최병수	홍정표
김광현	김치갑	손옥화	윤선구	이흥빈	최순채	홍지복
김동건	김정필	송근숙	윤현남	임도혁	최준희	

2023년 연회비 김상만

2022년 후원금 기부 명단 (32명 / \$17900 /2022-9-24)

강에드 300	김종울 200	신응남 500	이전구 1000	최철용 300
곽선섭 100	김한중 300	신진식 300	이종대 200	한용오 200
곽승용 100	박준구 1000	오용호 300	이준행 3000	한태진 500
권정덕 200	송학린 1000	오유섭 100	이행순 200	홍종만 1000
금영천 300	성기로 300	우규환 200	임호순 300	동창회 1000
김광현 300	손경택 1000	윤현남 500	정해민 500	
김승호 2000	송혜순 200	이강홍 200	천병수 300	

2022년 입회비 납부 명단 (5명 / \$1000 /2022-9-24)

김치갑	송혜순	이민제	임창우	허유선
-----	-----	-----	-----	-----

발전기금 기부명단 (1명 / \$20,000 /2022-9-26)

이준행 20,000

골든클럽 회비 납부 양식

이 회비 납부 양식을 Check (payable to **SNUAA**)와 함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실 주소: SNUAA 44 Macintyre Lane, Allendale, NJ 07401
 (T) 201-965-7759 (E) jaypkim@keiusa.com

성명: (한글)

(영문)

생년월일:

입회비 \$200

단과대:

학과:

입학년도:

졸업년도:

연회비 \$100

전화번호:

Email:

후원금 (\$))

주소 (Home):



10월 생일을 축하합니다.

- | | |
|--------------|------------|
| 강에드워드 (사대60) | 임호순 (공대52) |
| 노용면 (의대49) | 조달훈 (사대66) |
| 박준구 (문리65) | 홍정표 (음대67) |
| 손대홍 (미대79) | |
| 우규환 (사대60) | |

골든클럽 컴퓨터연구원 강의

Google Chrome 활용요령: 매주 화요일 10-12시
 Google Meet로 진행
 문의, 홍종만 646-3426-2667
 MS PowerPoint, 영상제작: 매주 토요일 10-12시
 Zoom 화상강의로 진행
 문의, 우규환 201-566-3665